

# 철학계의 암중모색, 절망보다는 희망의 발판

2001년 철학계의 성과와 과제

이진우 | 계명대 철학과 교수

불투명성의 짙은 안개가 걷히지 않은 상황에서 확실한 방법을 모르는 채 이리저리 시도해보는 암중모색(暗中摸索). 현재 철학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 말 외에 달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한때는 인문학도 돈이 될 수 있다는 철학적 대중화의 전략이 신자유주의의 도전에 대한 적합한 응답처럼 보였지만, 그것도 이제는 한계에 부딪힌 것처럼 보인다.

## 니체·하이데거 등의 철학고전 번역 이어져

인간의 본질적 문제라고 주장하면

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잠시 비껴

서 있을 수 있었던 철학적 문제에

대한 성실한 작업도 쉽게 눈에 띄지 않고, 사유의 길잡이라고 할 수 있는 고전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분야에서의 번역작업도 드물고, 우리를 괴롭히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철학적 성찰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인문학자들에게서 사유하고 글을 쓸 수 있는 여유를 박탈해간 업적평가, 연봉제, 점수 탕도 크겠지만, 사유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해버린 포스트(post) 또는 탈(脫)의 시대에 방향을 아직 설정하지 못한 것이 아마 가장 커다란 이유일 것이다. 철학은 지금 암중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절대적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소피스트들과는 달리 진리를 찾고 있는 철학에서 암중모색은 절망이기보다는 오히려 희망이다. 우리는 이런 희망의 조짐을 올해의 작업에서도 발견한다. 우선,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고전에 대한 번역작업이 착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니체의 유고들이 하나씩 번역됨으로써 니체 전집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이데거의 《형이상학의 근본개념들》(이기상 외, 까치)과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의 《천개의 고원》(김재인, 새물결)이 번역된 것은 소문으로만 중요한 것으로 떠돌던 철학사상이 확실하게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고전 번역이 정착을 지향하는 농부의 사유와 같다면, 어떤 사상을 그 한계까지 물고감으로써 동일성을 추구하는 비교철학은 유목민의 사유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한국도가철학회가 엮은 《노자에서 테리다까지》(예문서원)는 동양과 서양이 만날 수 있는 새로

운 비교철학의 지평을 열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우리사상연구소가 펴낸 《우리말 철학사전 1》(지식산업사) 역시 삶과 사상이 겹돌지 않는 우리말로 철학하기를 실험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모두 사유의 뿌리를 철저히 찾아간다는 점에서 암중모색 속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다.

## '지금 그리고 여기'의 문제와 고투한 국내 철학자들

말 속에 삶의 문제를 성찰할 수 있

는 사유의 계기가 들어 있지 않을

때 '우리말로 철학하기'는 자칫 구

호로 끝날 수 있다. 현실을 사상 속에 포착하지 못하는 말은 공허한 언어유희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철학이 아직 현대문명의 핵심적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민감한 문제를 우회하지 않고 담론의 장에 올리려는 용기 있는 시도가 있어 미래의 작업을 기대하게 만든다. 김석수의 《현실 속의 철학 철학 속의 현실》(책세상)이 그렇고, 윤평중의 《논쟁과 담론》(생각의나무)이 그렇다. 미래의 철학을 위해 전자가 과거의 정리를 시도하고 있다면, 후자는 '지금 그리고 여기'의 문제를 담론으로 풀어내기 위해 고투하고 있다.

동일한 철학적 문제를 다뤘던 고전에 대한 끊임없는 재해석, 학문적 성과의 비판적 교류, 현실 문제에 대한 철학적 성찰. 2001년 한국 철학계의 모습은 분명 암중모색이었지만, 이런 싹들이 보여 미래가 절망적이지만은 않다. 그렇지만 이런 작업이 활성화되고 우리의 철학이 정착하려면, 인문학자들은 '생각하고 쓸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신자유주의의 압박에 못 이겨 이른바 자신의 전문분야만을 지키는 '구석 지킴이'로 전락한 것인지 아니면 전문성과 경쟁력만을 강조하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사유 길잡이'로 남아 있는 것인지 새해를 기다려 본다. ■

이진우 교수는 연세대 독문과를 졸업하고 독일 아우크스부르크대에서 철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계명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 《탈이데올로기 시대의 정치철학》 《탈현대의 사회철학》 《도덕의 담론》 《이성은 죽었는가》, 역서로 《책임의 원칙》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 《인간의 조건》 등이 있다.